

제46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에 즈음한 선도농가의 요구 및 결의문

우리농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지나지 않으며, 식량의 자급률은 쌀을 제외하면 5%미만 수준으로 이다.

농민은 고령화되어 농업경영자의 평균연령이 58세에 이르고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은 15.6%로 초고령화 사회로 점차 진입하고 있다.

또한 농촌은 도시와의 소득, 교육, 의료, 복지, 정보, 문화 등의 격차로 이촌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농촌인구는 1980년 43%에서 2000년에는 20%로 감소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쇠퇴와 붕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영위하며 농촌에서 살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선결과제로 과연 이 시대의 농민, 농업, 농촌의 의의와 그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국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의 선도농가들은 정부 및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 농민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농업을 통해 국토의 균형적 발전, 수자원을 함양, 대기 정화, 전통문화를 유지 보전 등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제 농민을 공익적 기능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인정하고, 각종 직불제를 확대 실시하라.

하나 : 농업은 단순한 1차 산업으로 농산물 생산단계에 국한하지 말고 농산물가공에 대한 권리를 이제부터라도 농민 혹은 농민단체로 국한



▲ 46회 전국대회 토론회 장면, 왼쪽부터 정명채 박사, 김성훈 총장, 김준기 교수, 장원석 교수

하여 허용하고, 도농교류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직거래로써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확대해라.

그리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에서 식탁까지 확보를 위해 식품산업을 농림부의 업무로 완전히 이관해라.

하나 : 이제 농촌은 농업을 하는 농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산하고 정주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해야한다. 또한 5도2촌 시대에 도시민들에게 여가, 체험, 교육, 복지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농촌을 복지공간으로 가꾸어 도농복합생활공간으로 전환시켜라.

위와 같은 요구와 더불어 이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우리 농심으로 무장한 선도농가들은 상허 유석창 선생의 3대혁명을 오늘날에 재조명하여 이를 열정적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 농민의 정신혁명을 통한 민족적 협동

화와 성천 류달영 선생의 『농업은 나라의 바탕, 농민은 민족의 뿌리』라는 도농상생의 농심 사상을 바탕으로 도농교류와 도농공동체 복원에 앞장선다.

하나 : 농업의 기술혁명을 통한 과학적 전문화를 바탕으로 생태순환적 친환경 농업을 통한 고품질농산물 생산과 가공기술로 농업의 부가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서자.

하나 : 농촌의 생활혁명으로 합리적 복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답고 깨끗한 장수복지공간으로 개발하고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공간으로 가꾸는데 앞장서자.

2005년 12월 6일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선도농가 일동